



위치정보 산업 동향 보고서

7월
2호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격주 동향

법·제도

- 인권위 “통비법 개정 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남용 막아야”
-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 정보 판매금지

서비스

- ‘해로드(海Road)’와 함께 안전한 해양활동 즐겨보세요
- 구글 지도, 세계 24개 도시 공유 자전거 위치정보 제공..한국은 제외

기술

- 국토교통부, 항공기 결항 줄이고 안전도 높이는 KASS 구축 본격화
- ‘클릭 한번으로 발레파킹’주차공간 찾아 헤맬 일 없어진다

법·제도

인권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남용 막아야”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 관련 조항 신설

- 정부가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 주체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 기간을 규정하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및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그 요건으로 "범죄 실행을 저지하기 어렵거나 범인의 발견·확보 또는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울 경우"라는 보충성 요건을 추가했으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
 - 하지만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기지국 수사와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에 대한 요건만을 강화하거나, 통신제한조치 총 연장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는 등 정보 주체의 기본권 보장보다는 수사 편의성과 법 집행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으며,
 - 위치정보 추적자료 제공과 기지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해서 각각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거나 기본권 침해 당사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구체적인 범죄혐의 또는 해당 사건과 관련성 소명 요구, 보충성 요건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인권위는 "국가기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의견표명을 토대로 향후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을 보호하고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과도한 권한남용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혀

출 처

- KBS뉴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249652&ref=A> (2019.07.25.)

법·제도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 정보 판매금지

▶ 뉴욕시 브래넨 시의원, “제3업체에 판매 이득 챙기는 앱 개발업체 늘어”

- 뉴욕시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위치정보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저스틴 브래넨 뉴욕시의회원이 23일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이동통신회사와 모바일 앱 개발업체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해 사용자의 위치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조례안에 따르면 만약 위치정보를 제3의 업체에 판매하다 적발되면 건당 1,000달러, 사용자 1인당 하루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됨
 - 브래넨 시의회원은 최근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마케팅 업체나 소매 광고업체 등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해 이득을 챙기는 모바일 앱 제조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함
- 이 같은 논란이 일자 AT&T와 버라이즌 등 이동통신회사들은 이미 지난해 사용자 위치정보를 제3의 업체에게 판매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출 처

- 미주한국일보 : <http://www.koreatimes.com/article/1260014> (2019.07.25.)

서비스

‘해로드(海Road)’ 와 함께 안전한 해양활동 즐겨보세요

▶ 3개 기관 합동 실전훈련 실시로 인명구조 역량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원장 이승영)은 25일(목)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안전 사고에 대비해 ‘해로드(海Road)’ 앱을 이용한 유관기관 간 실전형 현장 훈련(FTX)*을 실시한다고 밝혀
 - * 실전형 현장 훈련(FTX) : Field Training eXercise, 다양한 상황에 대비한 야외실전형 훈련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태안해양경찰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 3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훈련은 태안군 인근 해상에서 해양안전 앱 해로드(海Road)를 이용한 실제 조난신고를 통해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등 인명구조 역량 강화에 집중할 예정임
- 해로드는 항법 장비를 갖추지 못한 소형선박이나 레저 보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폰 앱이며, 전자해도와 네이버 지도를 탑재해 빠르고 정확한 바닷길 안내를 도와주고, 이외에도 위치정보, 이동 경로, 해양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 좌표가 포함된 구조요청(SOS) 문자를 긴급구조기관(해경, 소방)에 발송할 수도 있음
- 이승영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원장은 “해로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더욱 더 안전하게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실전훈련을 통하여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앱 기능 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힘쓸 계획이다.”고 밝혀

출처

- 한국농어촌방송 : <http://www.newskr.kr/news/articleView.html?idxno=30757> (2019.07.25.)

서비스

구글 지도, 세계 24개 도시 공유 자전거 위치정보 제공...한국은 제외

▶ 세계24개 도시에 공유 자전거 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

- 16일(현지시각) 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 지도가 공유 자전거 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 적용하여 미국 외에도 영국과 독일, 대만 등 세계 24개 도시에서 이 기능을 이용할 수 있으나 한국은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구글 지도를 켜면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공유 자전거 위치와 이용 가능한 자전거 수, 자전거 주차가능 공간 등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음
 - 이 기능은 미국 뉴욕시에서만 시범 운영됐고, 현재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외에도 바르셀로나, 베를린, 브뤼셀, 부다페스트, 리옹, 마드리드 등 유럽 일부 도시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아시아권 도시 중에는 대만 가오슝과 신베이 시 등이 서비스 지역에 포함됨
- 구글은 공유 자전거 이외에도 킥보드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을 시작하였으며, 2018년 12월부터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도시에서 전동 킥보드 서비스 라임(Lime) 이용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구글 지도에서 이용자가 이동하려는 장소를 입력하면 라임을 이용했을 때 예상 이동시간과 가격정보가 뜨고 이를 누르면 라임 앱으로 연동됨

출처

- IT조선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781.html (2019.07.17.)

기술

국토교통부, 항공기 결항 줄이고 안전도 높이는 KASS 구축 본격화

▶ 24일 청주 주센터서 착수식·설명회...항공안전·국민 실생활 편의 향상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7월 24일(수) 청주공항 내 운영센터 예정지에서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의 본격적인 구축을 기념하기 위한 착수식과 관계기관 설명회를 개최. 이 날 행사는 우리나라 위성항법 분야의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및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본 착수식을 겸해 KASS 이용 활성화와 응용방안 마련 등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KASS 운영 및 진흥 협의체」 구성·운영 계획을 공유 할 계획
- ICAO는 현 위성항법(GNSS)의 위치오차(17~37m)를 실시간으로 개선하여 정확도(3m이내)와 신뢰성을 높이고자 SBAS를 국제표준으로 정하고 '25년까지 전 세계 운영을 목표로 권고하였으며, '14년부터 우리나라도 세계 7번째로 미국, 유럽, 일본, 인도 등에 이어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개발구축 사업을 시작하면서, '16년 10월 한·유럽 간 KASS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그동안의 해외공동설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기준국, 통합운영국 등의 주요 기반시설을 본격 구축하게 됨
- 국토교통부 권용복 항공정책실장은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KASS)은 국가 위치정보서비스의 핵심 기반시설로 항공분야 뿐만 아니라 해양, 물류, 재난,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 이라며, 2022년까지 완벽한 시설구축을 통해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는 정밀위치정보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출처

- 더드라이브 : <http://www.thedrive.co.kr/news/newsview.php?ncode=1065577650582759> (2019.07.25.)

기술

‘클릭 한번으로 발레파킹’ 주차공간 찾아 헤맬 일 없어진다

▶ 국내·외 기업들의 자율주차 기술 현황

- **(현대자동차)** 지난해 12월 자율주차가 가능한 전기차 영상을 공개. 주차와 출차를 대신해주는 ‘자율 발레파킹 시스템’(AVPS, Auto Valet Parking System)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레벨4(운전자의 간섭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이상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하며 2025~2026년 이후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 되는 시점에 양산차에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
- **(바이두)** 자율주행 시스템이 6대의 카메라·초음파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해 핸들을 조작하고 주행 또는 정지 명령을 반복하여 주차가 가능하며, 리 CEO는 “발레파킹 셀프 주차 솔루션은 이미 여러 자동차 기업의 주문을 받았다”며 “올해 양산돼 서비스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힘
- **(테슬라)** 지난 4월 운전자가 주차장 빈 공간까지 차량을 이동시키면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기능이 포함된 ‘오토파일럿’ 기술을 선보였으며,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불러낼 수 있는 ‘서먼(summon)’ 기능도 장착함. 다만 45m 이내일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스탠리로보틱스)** 프랑스의 스타트업 회사이며, 자동차를 들어 올려 주차 공간으로 옮기는 로봇을 파리의 리옹 공항과 독일 뒤셀도르프 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음. 올 8월에는 영국 개트워 공항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

출처

- 영남일보 : <http://www.yeongnam.com/rnews/newsview.db?mode=newsView&newskey=20190720.010130750290001> (2019.07.20.)



국내외 위치정보산업 언론보도 요약본



No.	구분	국가	제목	출처	날짜
1	법·제도	국내	▪ 인권위 “통비법 개정 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남용 막아야”	KBS뉴스	19.07.25
2		국내	- [관련 뉴스] 방통위 페이스북 개인정보책임자 국내로 불러 조사..징계 속도낼 듯	전자신문	19.07.28
3		미국	▪ 스마트폰 이용자 위치 정보 판매금지	미주한국일보	19.07.25
4		국내	- [관련 뉴스] 한국기업, EU 개인정보규정 준수...정부 나서야	중기이코노미	19.07.15
5	서비스	국내	▪ ‘해로드(海Road)’와 함께 안전한 해양활동 즐겨보세요	한국농어촌방송	19.07.25
6		국내	- [관련 뉴스] 용인시, 긴급위기상황 CCTV영상 정보 실시간 지원	에너지경제	19.07.23
7		글로벌	▪ 구글 지도, 세계 24개 도시 공유 자전거 위치정보 제공... 한국은 제외	IT조선	19.07.17
8		국내	- [관련 뉴스] 전동킥보드 춘추전국시대...8월에만 서울에 3천대 추가 투입	네이버뉴스	19.07.28
9	기술	국내	▪ 국토교통부, 항공기 결항 줄이고 안전도 높이는 KASS 구축 본격화	더드라이브	19.07.25
10		EU	- [관련 뉴스] EU 위성항법시스템 ‘갈릴레오’, 고장 1주일 만에 재가동	전자신문	19.07.19
11		글로벌	▪ ‘클릭 한번으로 발레파킹’주차공간 찾아 헤맬 일 없어진다	영남일보	19.07.20
12		국내	- [관련 뉴스] 밤사이 주차된 차가 사라졌다... 범인은 5G?	머니투데이	19.07.29



발행일 2019년 7월 29일

발행 및 편집 한국인터넷진흥원 데이터안전활용지원단 위치정보활용팀

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진흥길 9 한국인터넷진흥원 Tel 1544.5118

- ▶ 본지에 실린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므로, 우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KISA Report의 내용은 무단 전재할 수 없으며, 인용할 경우 그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